

‘Over and Over’... 삶은 계속된다

안과 밖의 통합을 생명으로 꿈꾸는 작가

진휘연(sadi 교수)

‘새로움’에 대한 열망은 모더니즘의 위용을 가진 후기모더니즘 패러다임 속에서도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새로움’을 모더니즘의 신화라고 비난하면서도 작가들은 여전히 남과 다른 무엇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결국 인간 생산 활동의 가장 높은 단계인 예술과 새로움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듯하다. 형식, 개념, 내용에서 과거와 다른 결과가 역사적 모더니즘 시기처럼 혁명적이지 않기에, 차이를 추구하는 오늘날 작가들에게 ‘자신만의 그 무엇’은 때론 애매하게, 또는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된 모습이기도 하다. 자신이 원하는 실체를 찾아내고 그것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박소영은 작고도 사소한 경험에 감각을 집중하는 소박한 작가이다. 그러나 일상 속에 깃든 새로움의 발견이 곧 생명의 문제로 변환 될 수 있다는 그녀의 믿음은 작품을 통해 끈질기게 도전되고 있었다.

출발과 전환

박소영은 한국과 독일에서 조각, 입체미술을 공부하고, 꾸준하고도 활발한 작업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중견 여성 작가이다. 그녀는 유학직후, 독일의 관념적 전통을 기초로, 언어를 통한 우리 인식의 관습을 지적하는 작품들을 연달아 발표했다. 거기에는 현대미술계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사물의 원 맥락으로부터의 이탈이나 비틀기를 통한 위트가 적절히 배합되어있었다.

「닭아드립니다」(1994)p.105, 「이정표」(1995), 「인생자동판매기」(1993) 같은 작품들이 그러했고, 이어 「공통분모」(1996)p.111 나 「하얀방대」(1997) 「타는 무덤」(1997)p.112 등에서는 오브제의 물성과 기능에의 원초적 기대를 전복시키는 상상력을 발휘했다. 박소영은 꾸준히 예술과 일상성의 경계를 와해시키는 개념미술의 계보를 이어갔는데, 그의 상상력은 언어의 구조에서 출발, 실제 공간 안에서 대상의 실체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또 사변적이던 질문들은 사물의 기호적 성격을 탐구함으로써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던 그의 방식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작가를 누르던 ‘해야 할 것’이란 당위적 주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것은 2000 년을 전후해서였다. 교육받았던 관념의 무게 대신, ‘자아’에 대해 눈을 돌린 작가에게 조각에 대한 개념도 변화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정말로 좋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통해, 박소영은 조각에의 관념적 전통, 즉 조형성, 물성, 맥락의 문제를 통한 언어적 탐구 대신, 결과 안의 경계와 그것의 아름다움에 관한 것으로 서서히 변화한다. 그것이 「껍질」의 탄생이다.

초기의 드로잉 「꽃 변기」(1995)나 「꽃망치」(1995)p.86 에서도 작가의 '예쁜' 정서와 일상성속에서의 소박한 시선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보편적 사물을 아름다운 대상으로 변화시키려는 작가의 노력은 의외로 단순한 예술행위의 더해짐에서 시작된다. 꽃을 그려 넣는 소소함이 그것이다.

작가의 2000 년 작 「조각의 껍질」p.81 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안료 통 안으로 더해진 꽃 장식은 일견 유치하거나 지나치게 순진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소용을 다한 사물에 대한 새로움의 생성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 기능을 가진 사물들은 마치 유효기간이 있는 듯하다. 특히 사물/생물의 겉은 폐기된 용도에 따라 종말을 그쳐 받아들이고, 공표한다. 그래서 작가는 남들이 쓰다버린 오브제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것의 겉, 즉 껍질을 형상화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껍질은 사물을 둘러싼 마지막 외피이지만, 이제 반대로 그곳은 새로운 존재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껍질의 의미와 탈의미의 변주

버려진 사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사물의 소용이 다했다는 주인의 결정을 다시 반복하려는 작가만의 개입의지를 드러낸다. 박소영의 껍질은 주로 식물의 잎 모양을 하고 있다. 작은 잎사귀는 최소한의 구성단위가 되고 수 천 개 반복적으로 이어진 그것은 사물의 겉을 마치 새로 피어나는 식물처럼 생동감 있게 변화시킨다. 작가는 껍질을 만들고 입히는 과정에 절대적인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섬세한 노동력을 투입한다. 도자기로 구운 것부터, 필름지 위에 그려진 것, 인쇄된 하나의 작은 껍질의 형상들을 그리고, 떼어내고, 다시 붙이는, 그 모든 과정은 예술가의 순수한 노동력과 장인정신의 발휘라는 고전적 가치와 맞닿아있다. 동시에 거대한 건축적 상징물을 주로 제작함으로써 관객을 압도하고, 그 결과 자연을 파괴하는 큰 미술, 기념비적 미술, 정치적인 화두의 남성 미술과 구분되는 여성작가만의 감성과 존재성을 반영한다. 사소하고 작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반-정치, 반-권위적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껍질」은 후기-모더니즘이 강조했던 진정한 탈-권력의 자유로움과도 일치한다.

껍질은 여러 겹의 사물의 단계중 하나이다. 실은 모든 자연과 인공적 산물(인간을 포함해서)은 여러 겹의 껍질을 갖는다. 사물에 내재하는 겹의 층위 중 마지막 장막에 관한 관심은 기호학(semiotics)을 통해서도 해석될 수 있다. 사물을 포함한 모든 형상이 하나의 기호의 속성을 갖는다면, 그것을 구성하는 외피는 기표(signifier)의 하나이다. 겉을 장식한 껍질은 곧 대상을 알리는 기표인데, 여기에 새로운 껍질이 더해지면 그 기표는 변화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때 기의는 어떻게 될까? 형태는 변하지 않았지만 겉모양은 변화했다는 사실이, 사물을 온전히 새로운 맥락에 속하게 할까? 예술품이라는 새로운 존재도, 또 기존의 오브제로서의 성격도 어느 하나 버리지 않은 채, 그것은 과거의 맥락과 새로운 맥락의 경계에 존재하게 된다. 박소영의 작품들은 그런 '애매함'을 특징으로 한다. 기표를 바꾸고, 새로운 기의의 탄생을 기대하거나, 외피는 변했지만, 물질이 가졌던 원래의 윤곽선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반된 시각을 조장한다. 어디까지가, 또 어떤 요소들이 기호의 성격을 온전히 결정하는지, 또한 그것의 변화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기표가 외피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안에 있는 형상에 의해 결정되는지 등, 현대 미술이 이제껏 던져왔던 질문이 여기서도 이어진다.

그러나 이런 기호학적 해석이나 의미보다 그녀의 「껍질」은 크다. 기호의 불완전함, 기의와 기표간의 임의적 연결점에 작가는 가장 기초적인 노동과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을 결부시킴으로써, 후기모더니즘 담론으로 지친 예술작품에 다시 근원적 성격을 복원시키려한다. 박소영의 작업은 거창한 현학적 주장을 담지 않는다. 오히려 일상적이고도 값없는 흔한 오브제에서 그것의 시작에 부여되었을 사물의 존재를 다시 확인시키려 한다.

그 과정은 그러나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오랜 관찰과 이해에서 생성된 것이다. 원래 사물이 갖고 만들어진 물성, 기능, 형태를 절대적 요소(형태)라 한다면 주변의 것들과의 상관관계를 상대적 요소(형태)라 하겠다. 전자가 변화하지 않아도 후자에 의해 어떤 변화가 가능한데, 박소영은 이런 사물의 절대성이 상대적 요소에 의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또는 상대적 변화가 절대적 변화를 야기하는지를 탐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물과 예술의 점점, 상대적 요소의 변화를 이끄는 예술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변화와 지속, 그리고 삶의 목적

그녀의 관찰은 지속과 변화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변하는 것은 언제나 존재한다. 지속하는 요소들과 상충하기도 하지만, 그 둘이 서로 배타적이지만은 않다. 사람들은 어떤 행위가 이어지는 연속상의 한 흐름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완전한 분리와 종결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지속 속에 분리(변화)가 있으며 반대로 참이기 때문에 삶은 이어진다. 이것이 작가의 '반복하다'가 갖는 의미이다. 작가의 껍질 작업들은 지속과 변화의 경계를 계속 자극함으로써 생명의 존재를 부여받는다.

자칫 지나치게 단순해보이거나 기계적, 또는 장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박소영의 작업은 작은 시선에서 시작한다. 작가의 '아름다운' 껍질을 덧입은 사물들은 처음부터 소박했다. 껍질을 새로 단 그것들은 굳이 예술작품으로서의 생명을 떠나 살아가려는, 또한 다시 살리려는 작가의 믿음을 드러내기에 지극히 인간적이다.

사물과 타아에 대한 분석은 분류로, 다시 구분 짓고 나눔이 질서로 이어진다는 서구 철학의 전제 대신, 그것을 덮어주는 통합적 감성으로서의 작품은 삶에 대한, 약간은 진부하고 지루한 우리의 일상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대표한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녀에겐 반복, 되풀이의 의미로 나타난 것이리라. 그러나 그 되풀이는 결코 아무 의미가 없는, 무미건조하고 지극히 객관화된 그런 반복이 아닌, 통합적인, 그리고 지금은 거의 잊혀진 듯 보이는 가치, 아름다움을 다시 이야기하려는 작가의 노력의 다름 아니다.

서구의 이분법적 발상을 뒤집으면서도 반정치적인 박소영의 시도는 감성과 미술사를 관통하는 지적인 유산의 결합이고, 그래서 「껍질」은 미술의 생명처럼 반갑다.